

The Effect of Heterosexual Interest, Appearance Interest, and Color Make-up Behavior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oderating Effects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s in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ang, Kab Won¹⁾ (Daejin University, Professor)
Shin, Mi Kyeong (Daejin University, Doctoral Student)
Park, Mi Jeong (Daejin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terosexual interests, interest in appearance, and Can you change this variable name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I don't know what the word "color" means here. color makeup behavi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s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s in girls' middle and high schools. The participants were 65 middle school girls and 168 high school girls i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The students voluntarily completed a mobile electronic questionnaire. The survey took place between August 5 and 8, 2019.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first, the higher the heterosexual interest of students,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appearance, however, their heterosexual interests are not related to their color makeup behaviors; (2) second,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appearance, the higher their color makeup behaviors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3) third, heterosexual interest directly affects appearance interest and color makeup behaviors and indirectly influe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Heterosexual interests, appearance interests, color make-up behavio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etero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s

1) Corresponding author: Kang, Kab Won, Professor, DaeJin University, 1007 Hoguk-ro, Pocheon-si, Gyeonggi-do, Korea, 11159 / E-mail: kangkab@daejin.ac.kr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성교제 경험의 조절 효과

강갑원¹⁾ (대진대학교, 교수)
신미경 (대진대학교, 박사과정생)
박미정 (대진대학교, 박사과정생)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대상은 경기도와 서울의 중학생 65명, 고등학생 168명, 총 233명이다. 학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모바일 전자설문에 응하였다. 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관심이 높을수록 외모관심은 높아지지만 색조화장 행동과 대인관계 행동은 높아지지 않았다. 둘째,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색조화장 행동과 대인관계가 높아진다. 셋째, 이성관심이 외모관심과 색조 화장 행동에 각각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넷째, 외모관심이 색조화장 행동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때 이성교제 경험 유무가 조절역할을 하였다.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성관심이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덜하고, 외모 관심이 높을수록 더 하였다.

주요어 :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 행동, 대인관계, 이성교제 경험

1) 교신저자: 강갑원, 교수,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 E-mail: kangkab@daejin.ac.kr
논문투고: 2019. 11. 16 / 심사일자: 2019. 11. 16 / 게재확정일자: 2019. 11. 29

I. 서론

사람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급격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그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문화 관점에서 청소년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이성 교제를 하는 행동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남녀를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중학교부터는 분리하여 교육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있어,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도 남녀 공학제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다.

이렇게 남녀공학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전보다는 더 이성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좀 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돌림에 민감하다. 즉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준거집단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사회적 인정을 얻거나 남의 시선을 끌고 싶어서 극단적인 스타일이나 특이한 색의 옷을 입기도 한다(Kim, 2006).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행동의 하나이다(Ahn, 1992).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욱이 이성 교제를 통해 사회화 기술을 습득하고, 인격도야를 경험하고,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오락 기회를 얻고, 중국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기회를 갖게 된다(Yun, 2014)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이성교제를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보고 자신의 성 역할을 인지하며, 상호관계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Kim, 2004)는 점에서 건강한 이성교제는 교육적 가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일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표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관점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모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자신을 표현하려는 인식과 타인에게 수용되려는 인식이 높아 자신감과 친화성이 높아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 수 있다.

이성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체중조절, 헤어스타일, 화장, 의복, 액세서리 등으로 외모를 꾸민다. 자신들만의 ‘미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성인과는 다른 색조화장을 하기도

한다(Lee & Jung, 2014).

화장을 하면 예뻐지고 자신감이 생겨 자기만족도(Park, 2017), 자아존중감(Hong, 2007)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 참여도 많이 하게 된다(Lee & Ku, 2009). 심지어 화장은 이들의 간접적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Kang, 2014). 화장은 피부를 좋게 할 목적으로 스킨로션, 영양 크림 등만 사용하는 기초화장 이외에 색조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아름다운 부분은 좀 더 돋보이게 하고, 결점 부분은 수정하여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색조화장도 있다(Han, 2012).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대부분 기초화장을 위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하고 붉게 볼 터치를 하거나 붉은 립밤이나 립스틱으로 입술을 칠하는 등의 색조 화장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색조 화장은 성인에 비하면 얼굴의 일부에 국한하여 가볍게 하는 정도이다.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비단 자신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의 외모 만족도가 높으면 교우관계가 좋다(Jang & Song, 2004; Jeon, 2001; Kim, 2005; Lee, 2007). 일반적으로 부정적 신체 이미지는 동성 친구 이든 이성 친구이든 그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Davison & McCabe, 2006)는 점에서 외모가 대인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여학생이 색조 화장을 하여 외모에 좀 더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성인이 되면 누구나 화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기의 화장 경험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논의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성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외모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욱 자신을 꾸미려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표현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그 방법으로 색조 화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성 관심이 외모 관심과 색조화장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연쇄적으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만약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이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여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을 교육적으로 잘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건강한 방식으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외모를 가꾸도록 잘 안내 준다면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물론 대인관계 능력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이성에 관심을 갖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장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계를 갖는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성관심과 이에 따

른 외모 관심이 막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발달 현상이라면 이를 좀 더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에서 좀 더 건강하게 학생들을 안내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이들의 이성교제 경험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 대인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이성관심과 색조화장간의 관계, 외모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관계에서 이성교제 경험은 조절 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이성관심

이성관심이란 이성에 대한 관심 또는 이성을 의식하고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신경을 쓰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2006). 사춘기에 이르면 성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면서 이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옷차림 등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성친구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Shin, 2008). 중학생만 되면 본격적으로 동성보다는 이성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성을 사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고등학생 때가 되면 성적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다. 건강한 이성교제는 지적·정서적으로 성숙을 돕고 바른 성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사회화 학습의 길이 되기도 한다. 이성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기도 한다(Tak, 2001). 이성관심과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와 예방연습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변화와 성 역할과 수용,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의 정상적 발달이다(Kim, 2006). 이러한 점에서 건강한 이성 교제는 청소년기에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이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이성 교제를 제지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외모관심

외모관심은 자신의 외모의 매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는 행동(Lee, 2019)이다. 현대인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이상적 외모를 만들기 위해 외모 관리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관심, 머리관심, 몸매 관심 세 요인으로써 이를 측정하였다. 사람들은 의복, 메이크업, 헤어, 체형관리를 하지만 성형이나 소품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돋보이게도 하고 자신의 신체 결점을 감추기도 한다(Lee & Ku, 2015).

적절한 외모관리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 능력, 일에 대한 능력 등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외모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행동이다(Kim & Lee, 2010; Park & Park, 2008). 외모에 대한 심리적 압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낮다(Kim, 2007). 남성이라고 외모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성은 자신을 객관화(objectification)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모관리를 하기도 한다(Hong, 2007).

청소년은 성인 못지않게 외모에 관심이 있다.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비현실적 미를 사회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여 외모에 대한 인지적 성향이 높다(Cho & Koh, 2001). Lee(2012)는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신체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 일각의 외모지상주의 풍조로 인해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고 보았다.

3. 색조화장

색조화장은 메이크업(Makeup)과 비슷한 의미로, 색조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 피부에 아름다운 부분은 좀 더 돋보이게 하고, 결점은 수정하여 곱게 꾸미는 화장 행동을 말한다(Han, 2012). 예나 지금이나 색조화장은 자신과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한 적극적 자기표현 방법이다. 색조화장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비언어적 표현이다. 최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점차 화장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예전에는 성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대로 올수록 점차 화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자기표현, 외모관리,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등의 이유로 색조 화장을 하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때에 화장을 시작하고, 스킨, 로션의 기초화장을 하며 립스틱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Kim & Kim, 2003). 색조화장으로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

고 아이라인, 아이새도우 등 눈화장을 하기도 한다(Shim & Kim, 2008). Park(2017)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학생들은 화장을 하면 예뻐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만족도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그 경향이 더욱 높다. 또한, 화장을 하여 이성으로부터 호감이 증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35.8%와 34.2%는 각각 가벼운 색조화장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각각 7.9%, 16.1%이며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따라 하고 싶지 않으며, 유행에 뒤쳐진 학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화장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대인관계

개인과 개인의 내적 성격, 외적 행동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대인관계는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의 의미를 넘어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친화성, 자기주장, 책임감과 만족감, 사회성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Wee, 2015)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개념이다.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장성과 친화성 두 요인으로 보았다. 대인관계 능력의 측면은 크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배려하는 측면과 타인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원하지 않는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기주장성은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보살피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친밀 행동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Hong et al.(2002)이 개발한 대인관계 문제행동 척도를 보면 남을 지배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남에게 냉담하거나 남에게 과하게 관여하는 것도 대인관계 문제로 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억제하거나,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응하는 행동 역시 대인관계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주장성과 친화성은 대인관계의 주요 두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 즉, 또래 관계는 자신의 정서발달과 긍정적 자아개념과 사회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데에 중요하다. 특히 학교 내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Yoon & Wee, 2010). 대인관계를 잘 하는 학생은 교사나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학교 규칙도 잘 지키며 자신의 역할도 잘 이행한다.

5.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의 이성 관심과 외모 관심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흔치 않다. 그러나 사춘기에 있는 중·고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이성

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성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자 청소년은 더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자 외모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Jeon, 2000). 이 시기의 청소년은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의복에도 관심을 가지며(Hurlock, 1978),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멋을 부리며 동성 중에서 경쟁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Ahn, 1992; Park, 1998).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와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매력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Lim, 2010). 때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연예인과 비교하여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며 외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색조 화장을 하기도 한다(Kang & Kim, 2018).

청소년들은 또래끼리의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화장 행동 역시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화장 행동을 통해 얼굴 모습, 피부 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한다(Kang, 2014). 자기를 표현하는 화장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그 자체가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으며(Cho, 2003), 화장을 하여 향상된 외모는 자기존중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어, 사회생활의 참여도를 높여준다(Lee & Ku, 2009).

이러한 점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 화장 행동은 사회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래와 긍정적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Lee, 2009)에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또래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근한 또래관계나 성공적인 대인관계, 교우관계가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Jang, Song, 2004; Jeon, 2001; Kim, 2005; Lee, 2007). 청소년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서도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려는 욕구이며 대인관계의 적응을 돕는 행동이다 (Wee, 2015).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Kim & Lee, 2015), 외모만족도가 높으면 이것이 자기만족도를 높여 결국 또래와의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 Yoo, 2015)에 의하면 자신의 체형 인식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외모 중에서도 체형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는 또 다른 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고생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아도 예쁜 외모를 지향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성, 친절성, 신뢰성으로 구성된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Lee & Ha, 201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성관심이 높으면 외모관심이 높으며, 외모관심은 색조화장 행동을 촉진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 것이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중고생의 경우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될수록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색조화장도 더 하게 되며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과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다. 인터넷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며 구체적 인원과 비율은 <표 1>과 같다. 중학생 65명(27.9%), 고등학생 168명(82.1%) 총 23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90명(82%), 서울 22명(9%), 인천 등이 21명(9%)이다. 설문 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모바일 전자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연구대상

		n(%)			
		경기	서울	인천 등	전체
중학교	중1	12(5)	0(0)	0(0)	12(5)
	중2	28(12)	0(0)	1(0)	29(12)
	중3	22(9)	1(0)	1(0)	24(10)
고등학교	고1	47(20)	2(1)	2(1)	51(22)
	고2	27(12)	10(4)	16(7)	53(23)
	고3	54(23)	9(4)	1(0)	64(28)
계		190(82)	22(9)	21(9)	233(100)

2. 측정도구

가. 외모관심

외모관심 척도는 CASH(1990), Cho(2006), Choi(2009)의 신체 이미지 척도를 각색한 Jang(2014)의 신체 이미지 척도 1개 문항과 외모관리 행동 8개 문항, Heinberg et al.(1995)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Hwang(2007)의 외모관리 행동 척도 중 의복 관련 3개 문항을 참고하여 총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성분 분석을 하였고 아이겐 값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각 성분은 피부관심, 머리관심, 몸매관심으로 명명하였다. KMO 검정을 한 결과 .830으로서 .90에 다소 못 미치나 Bartlett 검정 결과 카이제곱 1011.390, 자유도 45로서 유의확률 .000으로 타당하게 나타났다. 세 요인의 총 분산 값 68.91%로 비교적 적합하다.

<표 2> 외모관심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성분1 (피부관심)	성분2 (머리관심)	성분3 (몸매관심)
문항1			.77
문항2			.82
문항3			.71
문항4		.83	
문항5		.89	
문항6		.82	
문항7	.70		
문항8	.83		
문항9	.82		
문항10	.62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계수로써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피부관심 .677, 머리관심 .843, 몸매 관심 .769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이 높다.

<표 3> 외모관심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피부관심	1, 2, 3	3	.677
머리관심	4, 5, 6	3	.834
몸매관심	7, 8, 9, 10	4	.769
계		10	.819

나. 색조화장

색조화장 행동 척도는 Seol(2009)의 얼굴뷰티관리행동, 네일뷰티관리행동, 헤어뷰티관리행동 연구를 토대로 제작한 Park(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개 문항 중 1번 문항은 전체 검사도구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하지 않아 제거하고 총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5개 문항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91이다.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많이 한다.

<표 4> 색조화장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1*, 2, 3, 4, 5, 6	5	.891

* 제외한 문항

다. 이성관심

이성관심 척도는 Kang(2004)과 Lee(2005)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한 Kim(2006)의 이성관심 척도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5>는 색조화장 척도의 구성 내용과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6개 문항 중 1번 문항은 전체 검사도구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하지 않아 제거하여 총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925이다.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에 관심이 많다.

<표 5> 이성관심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1*, 2, 3, 4, 5, 6	5	.925

* 제외한 문항

라.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척도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가 개발한 척도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Kim & Kim(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 Park(2014)의 대인관계 척도 문항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항을 선정하고 표현을 일부 수정한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11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아이겐 값 1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각 성분은 자기주장, 친화성으로 명명하였다. KMO 검정을 한 결과 .891로 .90에 다소 못 미치나 Bartlett 검정 결과 카이제곱 1437.659, 자유도 66, 유의 확률 .000으로 타당하게 나타났다. 두 요인의 총 분산 값 60.40%로 비교적 적합하다. 11개 문항 중에서 전체 측정 도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2번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6> 대인관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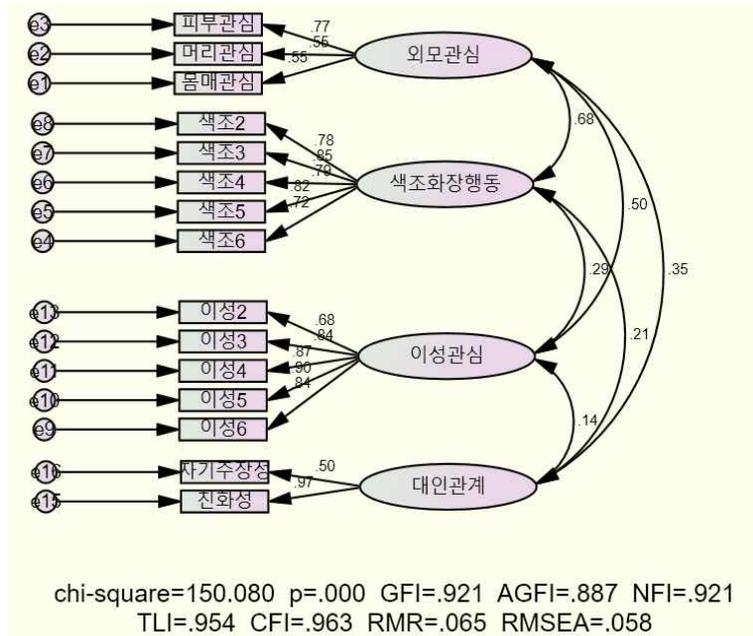
	성분1(자기주장)	성분2(친화성)
문항1		.81
문항3		.78
문항10		.71
문항11		.83
문항14		.80
문항4	.83	
문항5	.75	
문항7	.84	
문항9	.70	
문항12	.60	
문항13	.53	

최종 사용한 도구의 구성내용과 신뢰도는 <표 7>과 같다. 신뢰도는 자기주장 .873, 친화성 .826 전체 .871이다.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표 7> 대인관계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주장	1,3,10,11,14	5	.873
친화성	4,5,7,9,13	5	.826
계		10	.871

전체 검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GFI* .921, *AGFI* .887, *NFI* .921, *TLI* .954, *CFI* .963, *RMR* .065, *RMSEA* .058로서 비교적 적합도가 양호한 편이다.



[그림 1] 측정모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 자료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21, AMOS 18 프로그램으로써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구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하였다. 측정 동일성, 형태 동일성 검증을 하고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 통계

각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전체 경향이 어떠한지 평균을 구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분포의 정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각 변인의 평균 및 첨도와 왜도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표준 편차	첨도	표준 편차
외모 관심	피부관심	234	3.60	.78	-.09	.16	-.44	.32
	머리관심	234	3.52	1.01	-.50	.16	-.32	.32
	몸매관심	234	2.86	.87	.10	.16	-.33	.32
	계	234	3.33	.69	-.24	.16	-.25	.32
색조 화장	색조2	234	3.98	1.28	-1.26	.16	.46	.32
	색조3	234	3.76	1.41	-.94	.16	-.51	.32
	색조4	234	3.46	1.56	-.53	.16	-1.30	.32
	색조5	234	3.55	1.48	-.63	.16	-1.06	.32
	색조6	234	3.53	1.47	-.64	.16	-1.02	.32
	계	234	3.65	1.20	-.81	.16	-.25	.32
이성 관심	이성2	234	3.29	1.15	-.34	.16	-.47	.32
	이성3	234	2.99	1.23	-.07	.16	-.99	.32
	이성4	234	3.30	1.18	-.51	.16	-.51	.32
	이성5	234	3.24	1.19	-.39	.16	-.66	.32
	이성6	234	3.19	1.15	-.35	.16	-.55	.32
	계	234	3.23	.99	-.44	.16	-.03	.32
대인 관계	자기주장성	234	3.62	.82	-.69	.16	.80	.32
	친화성	234	3.53	.78	-.49	.16	.35	.32
	계	234	3.57	.69	-.59	.16	1.19	.32

평균을 보면 5점 만점 기준으로 외모관심은 3.33점이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피부관심 3.60점, 머리관심 3.52점, 몸매관심은 2.86점이다. 색조화장 점수는 3.65점, 이성관심 점수는 3.23점, 대인관계 점수는 3.57점이다.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인 자기 주장성은 3.62점, 친화성 점수는 3.57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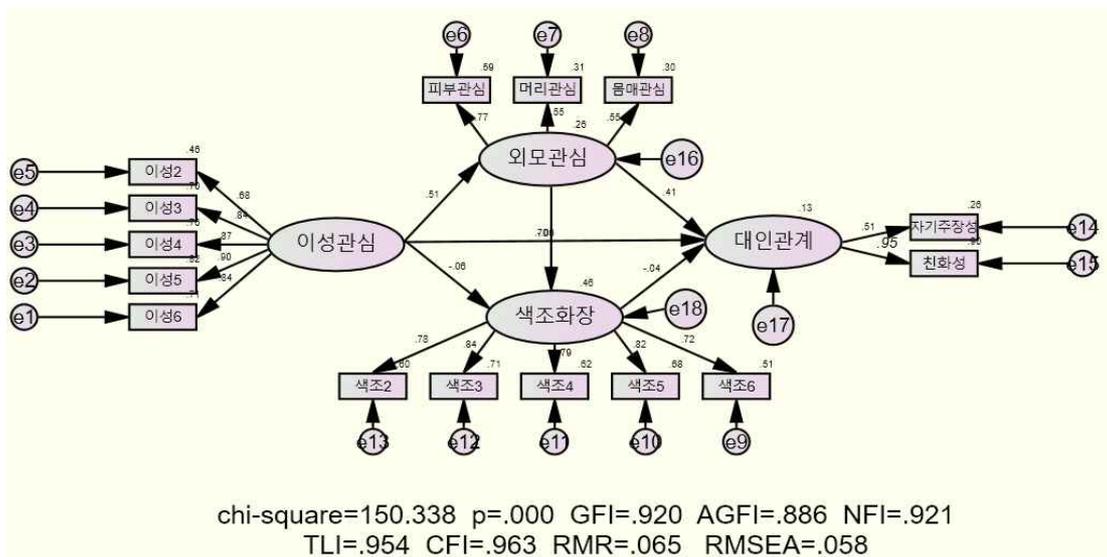
왜도는 모든 변인이 절댓값 .07에서 1.26 사이에 분포하여 정규성 충족 기준인 절댓값 3을 넘지 않고, 첨도는 모든 변인이 절댓값 .32에서 1.30 사이에 분포하여 충족 정규성 충족 기준인 절댓값 8을 넘지 않아 모든 변인 분포는 정규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 간의 관계분석

가. 기저 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성에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고 그럴수록 색조화장을 더 하

며, 결국 대인관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계를 모델로 제시하면 [그림 2] 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GFI .920, $AGFI$.886, NFI .921, TLI .954, CFI .963 으로 대부분의 지수가 높다는 기준인 .90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고 있고 RMR 은 .065로 매우 적합하다는 기준인 .10이하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RMSEA$ 는 적합 한 기준인 .10보다 작은 .058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기저 모델 구조

잠재 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표 9>와 같다. 이성관심과 외모관심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505로 나타나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색조화장과는 -.062로 나타나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심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는 -.056으로 나타나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은 색조화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704로 나타났고, 외모관심과 대인관계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도 .406으로 나타나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색조화장은 대인관계와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035로 나타나 상관없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성관심이 외모관심에 영향을 주고 외모관심은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색조화장에 영향을 주지만 색조화장 자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기저 모델 잠재 변수간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C.R	p
이성관심 → 외모관심	.505**	5.154	.000
→ 색조화장	-.062	-.742	.458
→ 대인관계	-.056	-.561	.575
외모관심 → 색조화장	.704**	5.429	.000
→ 대인관계	.406**	1.879	.060
색조화장 → 대인관계	-.035	-.291	.771

효과를 분해해 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기저모델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이성관심 → 외모관심	.505***		.505***
→ 색조화장	-.062	.356**	.294***
→ 대인관계	-.056	.195**	.139
외모관심 → 색조화장	.704**		.704**
→ 대인관계	.406**	-.025	.381**
색조화장 → 대인관계	-.035		-.035

** $p < .01$, *** $p < .001$

이성관심이 외모관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크기는 .505이지만 색조화장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관심이 외모관심에 영향을 주어 색조화장에 .356의 간접적 영향을 외모 관심과 색조화장에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는 .195의 간접적 영향을 준다. 종합하면 이성관심은 직접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외모관심과 색조화장이 영향을 주어 결국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나. 이성교제 유경험자 구조 모델 분석

변인 간의 관계가 학생의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하였다. <표 11>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효과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성관심과 외모관심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560이고 색조화장과는 -.295이다. 이

성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색조화장을 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모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870으로 매우 높아 역시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색조 화장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심이 직접 대인관계에 .546의 직접 영향을 주지만, 색조화장에도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간접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색조 화장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이성교제 유경험자 모델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이성관심 → 외모관심	.560**		.560**
→ 색조화장	-.295*	.487***	.192*
→ 대인관계	-.271	.288*	.018
외모관심 → 색조화장	.870***		.870***
→ 대인관계	.546**	-.078	.468**
색조화장 → 대인관계	-.090		-.090

* $p < .05$, ** $p < .01$, *** $p < .001$

다. 이성교제 무경험자 구조 모델 분석

<표 12>는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변인간의 효과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성관심과 외모관심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68이고 색조화장과는 .051이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과 달리 이성관심과 색조화장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역시 이성관심이 외모관심에 영향을 주어 색조화장에 .197의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관심은 색조화장에 .535의 직접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에 .464의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성교제 무경험자 모델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이성관심 → 외모관심	.368*		.368*
→ 색조화장	.051	.197**	.248*
→ 대인관계	.076	.135	.212*
외모관심 → 색조화장	.535**		.535*
→ 대인관계	.464**	-.077	.388*
색조화장 → 대인관계	-.143		-.143

* $p < .05$, ** $p < .01$,

3. 조절효과 분석

가. 이성 교제 경험 유무 집단의 측정 동일성 검증

이성관심, 외모관심, 색조화장, 대인관계 간의 관계가 이성교제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하였다. 조절 효과 분석의 조건인 두 집단 간에 측정 동일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적합도 지수를 보면 Q 는 1.54로서 3 이하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GFI .868, $AGFI$.823, NFI .857, TLI .934, CFI .944로서 각각 대체로 양호하다. RMR 1.02로서 기준값 1보다 다소 높으나 $RMSEA$ 가 .48로서 양호한 기준인 .05 이하여서 두 집단 간에 측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이성교제 유무별 측정 동일성 모델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Q	GFI	$AGFI$	NFI	TLI	CFI	RMR	$RMSEA$
이성교제 경험 유무	275.095	179	1.54	.868	.823	.857	.934	.944	.102	.048

나. 이성교제 경험 유무 집단의 형태 동일성 검증

이성교제 경험 유무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두 집단 간에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태 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적합도 지수를 보면 Q 는 1.54로서 3 이하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GFI .868, $AGFI$.823, NFI .857, TLI .934, CFI .944로서 각각 기준값인 .9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RMR 은 1.02로서 다소 높으나 $RMSEA$ 가 .48로서 매우 양호한 기준인 .05 이하여서 두 집단 간에 모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모형 동일성 검증에서의 적합도 지수와 똑같다. 그 이유는 같은 공분산 행렬의 수와 계산해야 하는 값의 수가 일치하는 동치 모형이기 때문이다.

<표 14> 이성교제 경험 유무 집단별 형태 동일성 모델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Q	GFI	$AGFI$	NFI	TLI	CFI	RMR	$RMSEA$
이성교제 경험 유무	275.095	179	1.54	.868	.823	.857	.934	.944	.102	.048

다. 이성교제 경험 유무의 조절효과

이성교제 유무 집단 간에 이성교제 경험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특정 경로 선을 등가 제약했을 때 이성교제 경험 유무 집단 간에 모형이 동일한지를 검증한 것이다. 모두 2개의 제약 모델을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제약 1 모델은 이성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경로를 제약한 것이다. 그 결과 역시 기저 모델에 비하여 카이스퀘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이성교제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각각 -.295, .051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이성교제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이성관심이 높을수록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2 모델은 외모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경로를 제약한 것이다. 그 결과 역시 기저 모델에 비하여 카이스퀘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이성교제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각각 .870, .535로서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이성교제 경험 유무별 기저모델과 경로 등가제약 모델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모델	경로	DF	CMIN	P	TLI
제약 1모델	이성관심 → 색조화장	1	4.099	.043	.002
제약 2모델	외모관심 → 색조화장	1	4.709	.030	.002

종합해 보면, 이성관심은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모 관심에 영향을 주고 외모관심은 색조화장에 영향을 주어 결국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색조화장은 직접 대인관계 영향을 주지 않으나 외모관심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때 매개 역할을 한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색조화장을 오히려 하지 않지만 외모에는 관심이 더 높다. 또 이것이 색조화장을 더 하게 하여 대인관계에 더 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때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성관심이 아니라 외모 관심이며 외모 관심이 높아지면 색조화장 역시 더 하게 되어 이 역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해 색조 화장은 오히려 하지 않지만 외모에 관심이 더 커서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것이 색조화장을 더 하도록 하여 대인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더 준다.

<표 16>은 이성교제 경험 유무 집단별 잠재 변수 간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나타낸 것이

다. 이성관심과 외모관심 간의 경로는 이성교제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자 집단 각각 .560, .368로서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경로는 각각 -.295, .051로서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색조화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심과 대인관계 간의 경로계수는 각각 -.271, .076로서 두 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과 색조화장 간의 경로계수는 각각 .870, .535로서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과 대인관계 간의 경로계수는 각각 .546, .464로서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색조화장과 대인관계 간의 경로계수는 각각 -.090, -.143으로 두 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이성교제 경험 유무별 잠재 변수간의 표준화 회귀계수

	이성교제 유경험자			이성교제 무경험자		
	표준화계수	C.R	p	표준화계수	C.R	p
이성관심→외모관심	.560	4.592	.000	.368	2.732	.006
→색조화장	-.295	-2.184	.029	.051	.426	.670
→대인관계	-.271	-1.383	.167	.076	.522	.602
외모관심→색조화장	.870	4.370	.000	.535	3.423	.000
외모관심→대인관계	.546	1.579	.114	.464	1.850	.064
색조화장→대인관계	-.090	-.389	.697	-.143	-.760	.447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도권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65명, 고등학생 168명, 총 233명이며, 설문은 모바일 전자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이성관심이 대인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없지만 이성에 관심이 있으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 색조 화장을 더 할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이성 관심은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성 관심 행위 자체는 대인관계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성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

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Kim(2006)의 연구 결과와 여자 청소년은 이성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외모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Jeon(2000)의 연구 결과로써 설명이 된다.

이성관심이 높을수록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색조 화장을 더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성관심과 색조화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관심 행위 자체는 색조 화장을 유발하지 않고 어떤 매개 변인이 있을 때에만 색조 화장 행위를 높여준다. 본 연구에서 이성 관심이 외모 관심에 영향을 주어 색조 화장에 .356의 간접 영향을 보여 준 것에서 외모 관심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모 관심과 색조 화장 간의 표준화 회귀 계수가 .704로 확인되어 외모 관심과 색조화장은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다. 즉 외모 관심이 매개하지 않으면 이성 관심은 색조 화장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모 관심과 색조 화장 행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자 청소년은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외모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Jeon, 2000),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멋을 부리려 한다는 점(Ahn, 1992; Park, 1988)에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연구 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외모 관심이 대인관계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두 변인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406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선행 연구 결과는 다수 확인되고 있다.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나 교우관계가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Jang & Song, 2004; Jeon, 2001; Kim, 2005; Lee, 2007)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한다는 의미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를 자기주장성과 친화성으로써 측정하였는데 자기 주장성은 자신의 표현 행동과 관련이 있고 타인에 대한 인식은 친화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성관심이 외모관심에 영향을 주고 다시 색조 화장에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이성관심이 외모관심에 .51의 정적 영향을 주고 색조화장에 .36의 간접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대인관계에 .20의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이성 관심이 단독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외모관심과 색조화장 행동이 매개될 경우 정적 영향을 준다.

이성 관심이 색조 화장에 영향을 줄 때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을수록 색조 화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 관심과 색조 화장 간의 표준화 회귀 계수가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이 각각 -.30, .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색조화장을 더 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정컨대 이미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

에 비하여 이성 교제 시에 색조 화장을 많이 하여 식상했거나 그 기간에 색조 화장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경험을 더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모 관심이 색조 화장에 영향을 줄 때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표준화 회귀 계수는 각각 .87, .54로 전자 학생이 후자의 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하여 외모 관심이 높을수록 색조 화장을 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이성 관심과 외모 관심 간의 상관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모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성 관심은 그 자체로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외모 관심이 매개를 하고 색조 화장이 매개를 할 때 정적 영향을 준다. 이상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이성 관심은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성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 관심이 높아져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을 지나치게 비교육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모 관심이 대인관계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외모 관심에는 자신을 자신 있게 표현하려는 동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으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대인관계의 자기주장성, 친화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더욱이 외모에 만족할수록 대인관계나 교우관계도 좋아진다는 점(Jang & Song, 2004; Jeon, 2001; Kim, 2005; Lee, 2007)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여학생들은 외모의 관심 행동이 색조 화장 행동으로 나타나며 화장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Lee & Ku, 2009), 외모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Lee, 2009)는 점에서 학교나 부모들은 이들의 색조 화장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색조화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교나 지자체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게 이성 교제를 하는 법이나 화장을 포함한 건강한 자기 외모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을 더욱 자신 있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나아가 대인관계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hn, K. D. (1992). *Leisure activity and behavior of Korean teenagers* (Korean Youth Culture 2). Seongnam, Korea: Korea Institute of Mental Culture.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Cash, T. F. (1990). Losing hair, losing points the effects of male pattern baldness on social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 154-167.
- Cho, E. (2003). *The study on the effect of make-up for the women'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 S. G. (2006). *Research on female interest in beauty in order to Follow after their management behaviour*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S. M., & Koh, A. R. (2001). The effect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The comparison of age difference in female adolescents.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 Choi, J. Y. (2009). *The effect of hotel female employees' body-image o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ervice orientation*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Davison, T. E., & McCabe, M. P. (2006).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15-30.
- Han, G. Y. (2012). A Study on Women's Awareness of and Attitude to Men's Makeu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ics and Cosmetology, 21*(1), 61-77.
- Heinberg, L. J. and Thompson, J. K. (1995). Body image and televised images of thinness and attractiveness: A controlled lab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335-344.
- Hong, S. H., Park, Y. E., Kim, Y. H., Kwon, J. H., Cho, Y. R., & Jin, Y. K. (2002).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flex Scales (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Hong, S. I. (2007). *A study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of the middle-aged which is based on incom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urlock, E. B. (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hli: Tata Mcgraw-Hill.
- Hwang, Y. J.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and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veness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Jang, H. S. (2014). *Influences of body image and physic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psychological stability* (Master's thesis). Seokyeong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S. C., & Song, M. H. (2004).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3), 13-15.
- Jeon, E. S. (2001).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Jeon, K. S. (2000). A Study on Fashion leadership, use of fashion information and apparel shopping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male students (part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0*(7), 5-14.
- Kang, M. J. (2014). A study on the beauty make-up behavior according to self perceived competence in teenage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3), 1-12.
- Kang, M. J., & Kim, B. B. (2018). The study on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makeup behavior: Based on the survey of upper grade girls. *The Korean Society of Cosmetics and Cosmetology, 8*(1), 69-78.
- Kang, N. S. (2004). A Study on the Sex Awareness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Kim, C. D., & Kim, S. I. (1999). The effect and study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tudent Living Laboratory, 35*(1), 83-95.
- Kim, H. J., & Lee, H. J. (2010). A study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body exposure attitudes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3), 99-109.
- Kim, J. A., & Kim, Y. S. (2003). A study on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55-73.
- Kim, J. M. (2006). *The effects of sex role identity and interest in the opposite sex of high school male students on appearance making attitude*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K. S., & Lee, H.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The meditating effect of self-confidence.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 331-356.
- Kim, S. H.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elf-Asser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n, Korea.
- Kim, W. 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rational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in male and female school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3(3), 60-117.
- Kim, Y.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internalization ideal beauty stereotyp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S. (2007). *The effects of th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the sex difference on self-efficacy, school-related adjust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H. O., & Ku, Y. S. (2009). A structural study on social self-efficacy,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1(2), 271-277.
- Lee, H. O., & Ku, Y. S. (2015).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7), 118-128.
- Lee, H. Y., & Yoo, H. N. (2015). Relations among body shape percep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piritual well-being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327-335.
- Lee, J. Y. (2019). A study of the self-efficacy, appearance concern, and clothing attitud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7(1), 17-26.
- Lee, K. H., & Ha, K. Y. (2016).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olescence high school girls and interpersonal relation, psychological stability: Focused on the high school students in Jinju.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4(3), 38-47.
- Lee, K. H., & Jung, Y. J. (2014). The effect of appeara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appearance satisfaction upon purchasing cosmetic products -Based on the survey of fifth and sixth grade girl students. *Journal of The Art for Korean Physical Beauty Arts*, 15(4), 40-42.
- Lee, M. S.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of adolescents.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3), 433-443.

- Lee, M. S. (2012). The effects of appearance instrumentality 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2*(1), 111-112.
- Lee, S. R. (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ssociation with the other sex students in coeducational high schools*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im, I. S. (2010). *A analysis of differences to female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uwon, Korea.
- Park, E. H. (2014).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Doctoral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G. H. (1998). *Teenage sex*. Seoul, Korea: Bumwoosa.
- Park, J. Y. (2017). Study on makeup consciousness and beauty care behavio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3*(3), 377-385.
- Park, S. J., & Park, G. S. (2008). Male attitude and recognition f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stume Culture Association, 16*(3), 533-546.
- Seol, H. J. (2009).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eauty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the growing generation concerning Appearance*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m, J. Y., & Kim, H.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use of make-u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4), 128-138.
- Shin, U. J. (2008). *Psychology white depar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He's got a girlfriend)*. Seoul, Korea: Galleon.
- Tak, M. K. (2001). *A study on conditions of intersexual acquaintances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Wee, E. H. (2015). A study on differences in body comparis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mong adolescent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by sex and ag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1), 13-29.
- Yoon, S. I., & Wee, E. H.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i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2), 1-13.

Yun, S. Y. (2014). *Effects of upper level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ing interest on school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